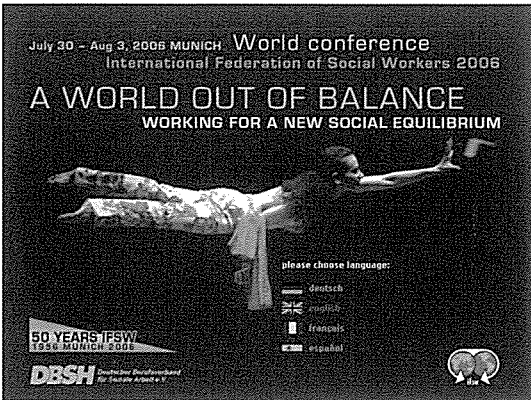


세계사회복지대회, 꿈의 도시 뮌헨에서 개최

| 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원협력팀



올 해는 1956년 설립된 IFSW(세계 사회복지사연맹)가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사회복지대회에서는 IFSW 탄생 50돌을 기념하기 위한 성대하고도 특별한 잔치가 준비되고 있다. 뮌헨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 준비과정의 뜨거운 열기가 서울까지 전해져 온다.

이번 대회가 개최되는 뮌헨은 IFSW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도시이다. 50년 전 1956년에 8월 9일, 바로 이 도시에서 IFSW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대회의 주제인 “균형에서 벗어난 세계: 새로운 사회적 균형 맞추기”는 50주년을 맞이하는 IFSW 및 IFSW로 대표되는 세계 사회복지계가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루기에 매우 적절한 주제이다.

지난 50년간 각 국은 사회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 다각적인 의사소통 방법들을 이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부국과 빈

국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뮌헨 대회를 통해 현재 각 국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불평등에 대해 다지역적 (multi-regional) 관점으로 접근하여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여름은 꿈의 도시 뮌헨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어보는

것이 어떨까?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고 하지 않던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모인 사람들의 열기(熱氣) 속에서 이 더운 여름을 뜨거우면서도 시원하게 보내보자. 토론과 논의의 시간 외에 아름다운 뮌헨을 즐기고, 독일의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의 뮌헨 대회 참가는 한국 사회복지사들에게 자신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IFSW(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IFSW의 전신은 IPSSW(International Permanent Secretariat of Social Workers)이다. IPSSW는 1928년 파리에서 설립되어 활동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다 1950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사회복지대회에서 직업적인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국제조직으로의 세계사회복지사연맹 창설을 결의하게 된다. “7개국이 회원국이 될 것을 동의할 때

IFSW가 실행된다”라는 결의는 사전작업을 거쳐 1956년 뮌헨에서 열린 세계사회복지대회에서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처음 12개 회원국으로 시작한 IFSW는 현재 8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1972년 IFSW에 가입하여 회원국들과 다각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해오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서구 선진국들에 의해 설립된 IFSW가 그들만의 협력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회원국이 점차 확대되어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면서 세계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전문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회원국들의 교류를 위한 분명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던 IFSW는 그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다.

IFSW는 스위스 베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표부를 두고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세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 IFSW 50주년 기념 세계사회복지대회

- ♣ 일 정 : 2006. 7. 30(일) - 8. 3(목)
- ♣ 장 소 : 독일 뮌헨 ICM
- ♣ 주 제 : 균형에서 벗어난 세계: 새로운 사회적 균형 맞추기
A WORLD OUT OF BALANCE:
WORKING FOR A NEW SOCIAL EQUILIBRIUM
- ♣ 주 최 : IFSW(세계사회복지사연맹)
DBSH(독일사회복지사협회)
- ♣ 참고 : www.socialwork2006.de